

# 줄줄 새는 상수도 PE관 교체 절실

포항, 수돗물 누수로 90억원 손실 ... 철강업계 로비에 시장진입 난망

경북 포항지역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수돗물 누수손실액이 한해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포항시에 따르면, 시 전역에 매설된 상수도관 1729km 중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전체의 6.9%인 120.9km로 나타났다.

이에 따라 1일 수돗물 생산량 18만3000톤 중 공급과정에서 20.7%인 3만8000톤이 누수돼 톤당 생산비 655원을 감안할 때 1일 수돗물 손실액이 2489만원, 한해 90억8000만원에 달하고 있다.

포항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누수율 방지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195억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전면 교체키로 했다.

포항시 관계자는 “현재 상수도 노후관은 죽도, 해도동 등 기존 시가지와 읍·면소재지에 집중돼 있으며, 2004년 27억원을 들여 17km를 교체하는 등 2010년까지 매년 20억~30억원씩을 투입해 노후관을 전면 교체하고 수돗물의 누수율을 줄여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0/16>